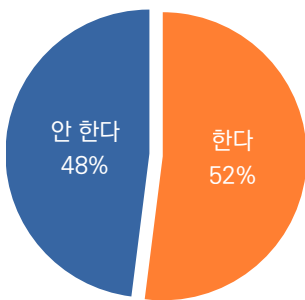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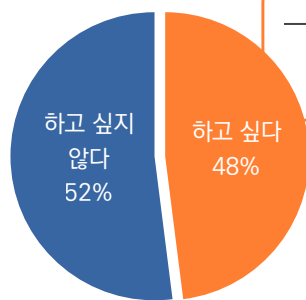
직장인 절반, '직장 송년회 하고 싶지 않다'!

- ▶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직장 송년회가 올해 4년여 만에 재개되고 있다. 최근 직장인들의 송년회 인식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(조선일보/틸리언프로)가 있어 살펴본다. 우선 '올해 직장 송년회 여부'를 묻은 결과, 송년회를 '한다' 52%, '하지 않는다' 48%로 절반의 직장인에서 송년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, 달라진 송년회 문화를 보이고 있다.
- ▶ 직장 송년회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'하고 싶다(48%)'와 '하고 싶지 않다(52%)'는 의견이 엇비슷했다. 다만 성별로 보면 남성은 61%가 송년회를 '하고 싶다'고 응답한 반면, 여성은 35%만 송년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.

[그림] 올해 직장 송년회 여부 (직장인)



[그림] 직장 송년회 희망 여부 (직장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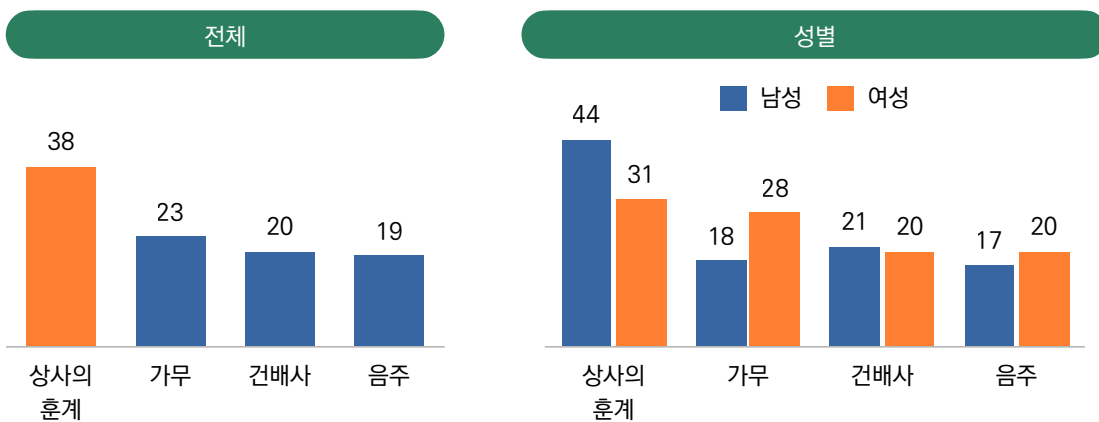
성별	
남성	61%
여성	35%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2000명의 송년회 고백...노래방-건배사도 싫지만 최악은 '이것' 기사 참조, 2023.12.11.(조선일보/틸리언프로, 20~50대 남녀 직장인 2,007명)
(<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weekend/2023/12/09/53HLIWSWNBDXPBKQZRJWCDWNIY/>)

◎ 송년회에서 가장 싫은 것, '상사의 훈계'!

- ▶ 송년회에서 가장 싫은 것을 질문한 결과, '(상사의) 훈계'가 38%로 1위였고, '여성(31%)'보다 '남성(44%)'이 '훈계'를 꼽은 비율이 크게 높았다. 그 외에 '가무' 23%, '건배사' 20%, '음주' 19%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

[그림] 송년회에서 제일 싫은 것 (직장인, %)
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2000명의 송년회 고백...노래방-건배사도 싫지만 최악은 '이것' 기사 참조, 2023.12.11.(조선일보/틸리언프로, 20~50대 남녀 직장인 2,007명)
(<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weekend/2023/12/09/53HLIWSWNBDXPBKQZRJWCDWNIY/>)